



6면

"지역 농정 중심체로서의 농협의 역할"

전주매일

2022년 6월 13일 월요일 (음 5월 15일) 제3034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자전거를 타고 도로 위 질주... 무주 그란폰도·메디오폰도 대회



2022 무주 그란폰도·메디오폰도 대회가 지난 12일 무주군 일원에서 열린 가운데, 참가자들이 자전거를 타고 도로 위를 달리고 있다.

(관련기사 9면)

진드기 물림 '주의보'

도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환자 발생 따라 야외활동 후 2주 내 고열 발생 즉시 진료 받아야

최근 도내에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환자 발생에 따라, 전북도 보건당국이 도민들에게 진드기 물림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도내 80대 여성이 야외활동 이후 지난 5일 오후 처음으로 진드기 매개 감염병으로 알려진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에 확진되었고 연이어 6일에는 50대 여성이 추가 확진된 바 있으며, 강원 지역에서는 지난달 16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으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은 주로 4~10월에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에 물린 후 고열, 위장관계 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을 나타내며, 주로 7월부터 10월까지 발생이 증가한다. 최근 전국적으로 5년 평균 연간 235명이 발생했고, 41명이 사망해 치명률이 17.4%에 이르는 감염병이다. 따라서 진드기가 활동하는 계절에 농작업, 산나물 채취, 제조작업, 캠핑,

산책 등 야외활동 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이다.

야외활동을 할 경우 긴팔·긴옷을 착용해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며, 일상복과 작업복을 구분해 입고, 기피제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또한 야외활동 후에는 옷을 반드시 세탁하고 바로 샤워를 하며 진드기에 잘 물리는 부위(귀 주변, 팔 아래 무릎 뒤 등)에 진드기가 붙어 있지 않은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만약 진드기에 물리면 무리하게 진드기를 제거하지 말고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

도 보건당국은 "SFTS는 치료제와 예방 백신이 없으며 치사율이 높은 감염병으로 농작업 및 야외활동 시에는 긴 소매, 긴 바지를 착용하는 등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야외활동 후 2주 이내에 고열(38~40℃), 위장관계 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이 있을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야외활동력을 알리고 진료 받을 것"을 당부했다. /김경수 기자

"농작물 약제 처방 식물 의사 법제화"

전북대-전남대-경북대, 식물방역대학원 정책 포럼

"농가 41% 농약 구매·사용 측면서 전문가 도움 절실"

농약 관련법에 "진단 등 만족도 높으나 정밀 처방 필요"

농작물 병해충 진단 및 약제 처방을 위한 '식물 의사 제도' 도입을 위해 전북대와 전남대, 경북대가 공동 운영하는 식물방역대학원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지난 10일 정책 포럼을 열고 다양한 제도적 방안을 논의했다. 식물방역대학원과 농진청 식물위생 전문가 정책연구팀, 전북대 농식물위해요소 제어 그린바이오 BK21사업단 등이 공동 주최한 이번 포럼에서는 식물 의사 추진의 필요성과 교육방안, 농약 사용 농업인 설문조사 결과 등이 발표됐다. 전북대 김동원 총장 최백렬 부총장, 순천대 고영진 총장(전 한국식물병리학회 회장), 충북대 김길하 교수(전 한국응용곤충학회 회장), 충북대 김홍태 교수(전 한국식물병리학회 회장, 현 한국농약학회 회장), 경북대 권

오석 교수(현 한국곤충학회 회장), 전북대 이귀재 교수(농식품기술융합 창의인재양성사업단장)와 농진청 농축산검역본부 및 관련 학계와 산업계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전북대 김재수 교수(식물방역학과 전공주임, BK사업단장)는 식물 의사 제도추진과 관련하여, 작물보호제 생산업체, 판매조직 및 농업인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시장 중심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화 추진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정책추진팀에서 조사한 설문 결과, 81%의 농가가 농약 구매와 사용측면에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특히 41%의 농가는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한 것으로 분석됐다"며 "농약 판매 측면에서도 자율가격제의 작물보호제 시장 특성상 치열한 경쟁에 처해 있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차별화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작물보호 산업에서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판매인들이 산림청에서 주관하는 나무의사에 관

심을 갖기 시작하는 부분은 주목할 만하다"고 말했다. 이어 "PLS 시행으로 작물에 사용되는 농약의 종류가 다양해짐에 따라, 추가적으로 전문적인 진단 및 처방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서비스 기회를 판매인들에게 제공할 필요성이 있으며, 선택은 판매인들의 몫으로 남겨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립한국농수산대학 권덕호 교수는 농약 관련 법의 특징과 농약 사용자 의견 등을 발표했다. 권 교수는 "농약과 관련된 법으로는 농약관리법, 식물방역법 그리고 산림보호법 등이 있으며 진단과 처방을 중심으로 관리할 수 있는 책임자 설정이 요구된다"며 "현재 농약의 진단과 처방에 대한 사용자 만족도는 높은 편이었으나, 다만 정밀하고 신속한 진단



농작물 병해충 진단 및 약제 처방을 위한 '식물 의사 제도' 도입을 위해 전북대와 전남대, 경북대가 공동 운영하는 식물방역대학원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지난 10일 정책 포럼을 열었다. (사진=전북대학교 제공)

처방 체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국립순천대학교 이세진 교수는 기존 판매인들이 선택권을 갖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식물 의사 양성 교육 방안을 제시했다. 이 밖에도 전북대 김소라 교수는

"전북대-경북대-전남대가 공동 운영하는 식물방역대학원의 기능과 역할을 소개했다. 특히 최근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협력해 검역관 자격시험 운영 기관에 선정되는 등 식물방역대학원이 검역 분야 인재양성의 산실임을 지지시켰다. /정은성 기자

2022년 전라북도 광한루원 상설공연 일정안내

대표관광지 광한루원

전라북도 대표관광지육성사업
공연 문의(남원시 관광협의회)
☎ 063-633-5353

전라북도 남원시 남원시관광협의회

조각너 살풀이 명무관
일광무, 덩덕쿵 어깨춤

관서당 남성제
사랑골 남원 서당을 품다

월매집
변사극 춘향전

완월정
완월정 풍류

영주각
광안정허부 상한사

춘향사당
광안루원의 풍물조작단

안복체험관
인인당

메루원마당
예루원 밤풍경

월광무 (조각너 살풀이 명무관 / 일요일 15:00~16:00)
변사극춘향전 (광한루원 월매집 / 목·토요일 13:00~13:50)
광안정허부 상한사 (광한루원 영주각 / 금요일 16:00~16:45)
덩덕쿵 어깨춤 (조각너 살풀이 명무관 / 토요일 15:00~15:50)
예루원 밤풍경 (예루원 마당 / 금요일 20:00 ~ 21:00)
완월정 풍류 (광한루원 완월정 / 화·금 14:00~14:45 / 수 16:00~16:45)
광한루원의 풍물조작단 (광한루원 춘향사당 / 금·일요일 11:00~11:30)
사랑골 남원 서당을 품다 (관서당 남성제 / 수 16:00~18:00 / 토·일 13:00~15:00)
신관사또부임행사 상설공연 (예루원·광한루원 일대 / 일요일 14:00~16:00)
전통혼례식 체험 상설운영 (관서당 남성제 / 9월 18·25일, 10월 2·9일 / 16:30~18:00)
한옥자원 야간 상설공연, 가인춘향 (화인당 특설 무대 / 토요일 20:00~21:30)
조선에서 돌아온 황희정승, 노상놀이야 (광한루원·예촌 일원 / 토요일 16:30~18:00)
광한루원 음악회 (광한루원 완월정 / 목·토요일 14:00~15:00 / 7·8월 흑서기 미운영)
광한루원 전통소리청 (광한루원 완월정 / 수요일 11:00~11:30, 14:00~14:30)
광한루원 남원농악 한마당 (광한루원 완월정 / 토요일 15:20~16:00)

조선시대 대표 정원 광한루원에서 펼쳐지는 전통문화예술공연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